

한반도의 이슬람



강사: **이희수** 교수

터키 이스탄불대학교에서 튀르크 이슬람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곳 마르마라대학교 중세사학과 조교수로 유목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란 등지에서 인류학 현장연구를 수행했으며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 『이슬람과 한국문화』, 『세상을 바꾼 이슬람』, 『중동의 역사』, 『쿠쉬나메』 등이 있다.

한반도의 이슬람은 이른 시기부터 그 교류의 흔적을 남긴다.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9세기 중엽의 아랍어 문헌들이다. 아랍-무슬림들의 한반도 입국을 일관되게 기록하면서 신라의 기후, 지리, 산물, 환경 등에 관한 유의할만한 기록을 남겼다. 현재까지 18명의 무슬림 학자들에 의한 20여권의 책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페르시아 문헌들도 확인되었다. 한국측 사료는 1024년경 고려초기에 대식상인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고, 고려말에는 회회인이란 존재들이 한반도에 거주했다는 기록들이 나타난다. 대식은 아랍상인들을 칭하고 회회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위구르 튀르크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과의 접촉과 교류, 이슬람 과학과 문화의 영향 등은 고려말-조선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1427년 오랑캐 문화를 근절하는 세종시기 칙령의 발효로 급격히 동화의 길을 걷는다. 오늘날 한국 이슬람은 한국전쟁 시기 무슬림 터키군대의 파병과 1970~80년대 중동 건설붐으로 새롭게 태동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15개의 모스크와 150여개의 무살라(예배소), 외국인 15만명, 내국인 3만 정도의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